

154개섬 천혜 절경...“진도 조도는 촬영중”

관광지·특산품 등 방송사 촬영 줄이어

150여개 섬으로 구성된 진도군 조도면이 TV 프로그램 명품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다.

30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조도면을 배경으로 최근 TV 인기 프로그램인 KBC '생방송 투데이'와 MBC '남도에 살고 싶어', 여행전문 케이블 TV, SBS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서 1월 한 달 동안 잇달아 촬영했다.

또 다음달 7일에는 KBS TV '체험 삶의

현장'촬영이 예정돼 있는 등 방송사의 촬영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날 텔런트 박용식, 개그맨 조문식, 김중하씨가 참여해 조도면의 대표적인 특산품 중 하나인 무수화 등을 촬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09년 첫 불을 밝힌 100년 역사의 하조도 등대를 비롯해 도리산 전망대, 조도대교, 상조도, 하조도 등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위치한 천혜의 절경이 전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최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된 조도는 섬 속의 섬으로 '조도(鳥島)'라는 이름도 새해처럼 많은 섬이 모였다고 해서 붙여졌으며, 우리나라 면 단위 중 가장 많은 유인도 35개·무인도 119개 등 총 154개를 거느린다.

조도 도리산 전망대에 오르면 나베도를 비롯해 조도대교, 하조도, 죽향도, 관매도, 대마도, 동·서거차도, 병풍도, 관사도, 배도, 내·외병도 등 다도해의 올망졸망한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특히 속, 미역, 톳, 무, 멸치 등의 해풍을

맞고 자란 우수한 품질의 특산품이 연중 생산되고, 사계절 낚시포인트로 전국의 강태공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동서남해안발전 종합 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도면 어류포·명지·활목지구에 항만정비와 마리나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 가족 중심의 해상관광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아닌 환경 보존과 함께 조도면을 ‘한국의 하동베이’로 개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오승우미술관’ 내달 24일 개관

‘무안군 오승우미술관’이 다음달 24일 문을 연다.

무안군은 오승우 화백으로부터 기증받기로 한 179점의 작품을 이달 말까지 기증받아 1층 전시실에 배치하고 부대 시설을 꾸민 뒤 미술관 개관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군은 올해 미술관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확보하고, 공채 관장 1명(6급)과 학예연구사 1명·청원경찰 1명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추경에서 행사운영비를 더 확보해 기획·초대전을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한반도의 매머드’

해남 공룡박물관 다큐 상영

해남 황산면 우항리 공룡박물관은 다음달 1일부터 박물관 영상관에서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EBS 제작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매머드’를 상영한다.

이번 상영물은 200만년 전 신생대 후기, 가장 춥고 혹독했던 시기인 빙하기의 한반도에서 살았던 매머드를 주인공으로 한 3D 다큐멘터리다.

검치호랑이 공격으로 장애를 가진 새끼 매머드 ‘맘무’가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빙하시대에 살았던 털코뿔소 등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동물과 현생 동물들의 조상도 만나볼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생태계의 寶庫’ 신안 무인도

환경부, 57개섬에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

환경부와 국립 환경과학원은 지난 해 신안군에 있는 57개 무인도에서 자연환경조사를 벌여 수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1급 동물인 수달과 구렁이, 매, 2급인 수리부엉이, 검은머리물떼새,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예기등, 끈끈이귀개가 발견됐다.

특히 수달과 검은머리물떼새는 비아섬을 비롯해 조사 대상의 30% 이상 섬에서 옮겨다니며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섬의 해안에는 별집 모양 지형인 ‘타포니’, 파도의 침식으로 생긴 ‘시아치’(Sea Arch), 주상절리, 해식 절벽 등 다양한 해안 침식지형과 유문암질 응회암 등 백악기 화산지형이

나타났다.

비아섬에는 동남아시아와 히말라야에서 주로 분포하는 식물인 ‘노란 별수선’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꽃은 제주에서 1935년 채집된 이후 70여년 만인 2007년 다시 발견된 적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보전할 계획이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하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증축, 야생 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등이 금지된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수달〉

〈노란별수선〉

〈검은머리 물떼새〉

농협은 농촌 건강 지킴이

목포·신안지부 3년째 무료 검진 지원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문명식)는 최근 목포 제일내과 병원(원장 김명원)에서 신안농협(조합장 주영근) 관내 ‘농촌사랑 1사촌 자매결연’ 농업인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사)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와 농협중앙회로 실시된 이번 건강검진에는 앞테면 추포마을과 자은면 고장마을 조합원 60여명이 참여했다.

문명식 지부장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300여 명의 조합원들에

게 무료건강 검진을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농촌사랑운동의 재도약을 위해 신규로 1사촌 자매결연 30건을 추진해 자매결연 기업과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신안군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판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신안시군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농촌사랑 1사촌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50여 건을 체결했으며, 매년 300회 이상의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영광 번영의 빛이여 영원하라”

郡, 오늘 ‘천년의 빛’ 랜드마크 점등식

영광읍 관문에 랜드마크 조형물이 세워졌다.

영광군은 국도 22호선과 연결해 군의 관문적인 한전사거리 중앙교통신에 영광군의 번영과 화합, 단합된 의지와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는 ‘천년의 빛’ 랜드마크 점등식을 31일 갖는다.

‘글로리(Glory) 영광타워’로 이름 붙여진 랜드마크는 높이 13m·전체 폭 4.3m 규모로 건축·전기·음악 분야에 총사업비 4억원이 투입됐다.

조형물 상단 원형반구는 ‘천년의

빛을 담은 그릇(器)’을 형상화했으며, 하단에는 태양과 번영·영원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봉황’을 문양으로 새겨, 군 브랜드 슬로건인 ‘천년의 빛’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됐다.

특히 은은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빨강·노랑·흰색의 야간경관 조명으로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조형물이 설치된 한전사거리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사고를 줄이고, 연료소모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회전교차로로 전환한



곳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랜드마크 설치를 통해 디자인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이미지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2013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

영광군 ‘1기업 1코디제’ 운영 등 총력전

영광군이 민선 5기동안 100개 기업 유치를 발 벗고 나선다.

영광군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난해 하반기에 ㈜체리부로 등 12개 기업을 유치했고, 올해부터 매년 30개씩 유치를 오는 2013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정기호 영광군수는 투자유치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기업체 10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는 등

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군은 대마 산업단지(164만㎡·민자사업)와 송림 농공단지(14만㎡·군직접사업) 조성사업을 오는 2012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산단 진입로와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과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또 공장설립 인·허가를 최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스톡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업유치 전담 TF팀과 ‘1기업 1코디제’를 운영하며, 군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군민 기

업사랑 운동을 전개한다. 신규 투자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50%를 지원하고, 투자유치 기금을 활용해 좋은 기업이 들어올 때 입지·시설투자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의 투자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특히 대마산단에 ‘전기자동차 실증 및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전기자동차(선박·농기계 포함) 관련기업을 집중 유치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 모든 공무원을 투자유치요원으로 양성해 ‘1부서 1기업유치 365운동’을 전개하고 군 산하 28개 부서(17실과, 11 읍·면)가 1년에 1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지원·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0여년 동안 확대해 아동들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